어느겨울날의회상

**그러고 보니 오늘은 2007년 정해년첫 근무가 시작되는 날이다.
올해는 600년 만에돌아온황금돼지해라던가?
상혼이만들어낸허상일지도 모르겠지만
황금돼지해를 맞아조그마한소망 하나를 빌어보고 싶다.**

오늘도 여느 월요일 아침때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주암호도로변을끼고출근길을나선다. 뿌연물안개로뒤덮인호수는어디가물이고어디가하늘인지채구분하기도어렵지만눈앞에끝없이펼쳐진백무의향연은사십대를얼마남기지않은남정네의가슴한자리를아리게하는것같다.

잠시도로변에차를정차한채담배한모금을길게뿜어본다. 월요일아침출근길이면반복되는10분남짓의짧은 여유로움이지만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지금의 객지생활에또하나의즐거움으로다가오는것같다.

한명석
환경관리공단보성관거현장주감독

지금의근무지인보성현장에부임한지는네달남짓. 3년전이맘때쯤가족과떨어져경기도에서공사현장감독생활을처음시작했었다. 전공이환경 분야인 탓에 처음으로 겪어 보는 현장 생활에 적응하는것이무척어렵기도했지만가족과떨어져객지생활에서 오는외로움과적적함이더욱견디기어려운시절이었다.

그렇게남양주에서30개월정도의현장생활을무사히마치고다음 부임지로오게 된 곳이이곳 보성 하수관거정비 공사 현장이었다. 보성이라는곳은현장생활하기전출장관계로자주들를기회가있었고, 그런이유로그리생소한지역은아니었지만딱히친숙한느낌도 없었다. 어느 영화에서촬영지로 나왔다던녹차 밭과「태백산맥」이란소설의무대정도로만알아오던곳이었다.

네달이지난지금돌이켜보면이곳에서의생활들이하나하나정겹기만하다. 남도특유의여유로움과바닷가사람들의다소거칠면서도투박한서민적인모습들, 가을이면짙은선홍빛꽃망울로물들여진호수가주변의백일홍꽃길, 그리고초겨울이면호수주변으로찾아드는물안개하며남도의풍취가너무도마음에든다.

대학졸업 후직장에들어가처음1년간서울에서생활하였다. 그리고경기도에서의3년간 현장 생활. 성격탓일수도있겠지만항상바쁜걸음을떼야하는그곳생활이왜그리싫기만했는지…. 이제는이곳생활에서해답을찾은것같기도하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는서울로올라가그곳에서살아야한다고이구동성으로외쳐댄다. 보이지않는그무언가를잡기위해앞만보고뛰어야한다고재촉한다.

난그런생활이싫다. 지금의여유로움과자연이가져다주는정겨움이더소중하기만하다. 아무것도이루지못한사람의변명으로들릴지모르겠지만이제는대학교1, 2학년생으로훌쩍커버린두애들과아픈곳없이항상그자리를지켜준집사람을생각하면이모든것이축복인듯싶다.

비록 수십 억원짜리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내 한 몸 누이고 우리가족편히쉴수있는그런집이있기에나는충분히행복한사람일테고, 그동안의삶또한부끄럽지만은않을거라는생각이든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2007년 정해년 첫 근무가 시작되는 날이다. 올해는 600년 만에돌아온 황금돼지해라던가? 상혼이만들어낸허상일지도 모르겠지만 황금돼지해를 맞아 조그마한 소망 하나를 빌어보고싶다.

이곳하수관거현장에근무하고있는환경관리공단직원들, 시공사인 GS건설직원들, 협력업체직원들이 모두가올한 해도 별탈없이건강한가운데수행중인공사가내년이맘때무사히준공되기를기원한다. 그리고이곳에서의현장경험을통해그어느현장에서도부끄럽지않는현장인이되었으면싶다.